

우리나라 집에 관한 민속 < I >

김 광 언
(인하대 부교수)

1. 건축의례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집을 지을 때, 문복장이에게 날을 받는 것(扨日)에서 시작하여 텃고사, 개공(開工)고사, 모탕고사, 성주운보기, 상량고사 집들이고사, 성주고사 등의 의례를 치루었다. 우리의 세시풍속의 대부분이 그러한 것처럼, 이러한 건축의례들도 제의(祭儀)적인 성격 외에, 집을 지어 나가는 과정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움을 짓고 다음일로 넘어 가는 시점에서 잠깐 숨을 돌리는 휴식의 의미도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건축의례들 중에는 지역에 따라 어떤 것은 생략되고 어떤 것은 더욱 보강되는 등 내용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근래에 와서 자취를 감춘 의례도 많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 중에도 내용이 크게 간소화 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다음에 우리의 전통적인 건축의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집지를 재목이 준비되면 우선 주인은 문복장이에게 가서 집터 닦는 날과 주춧돌의 날, 상량 올리는 날 그리고 입주할 날들을 미리 받아 온다. 목수는 이들 중에 상량올리는 날만은 어김없이 지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 상량은 날뿐만 아니라 그시(時)까지도 맞추어야 하므로 목수는 재목 중에 먼저 들보감을 골라서 다듬어 둔다. 재목의 반입 등이 순조롭지 못하여 준비가 덜되었을 때라도 우선 네 개의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올려놓는 시늉을 하여 상량식을 제 때에 마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날을 받을 때 문복장이는 주건물 외

에 대문, 곡간, 헛간, 변소와 십지어는 상하수도의 방위까지도 지정해 주는 일이 있다.

텃고사(土神祭)는 집터의신(土地神)에게 땅을 파헤치고 집을 짓게 되었으니 놀라지 말고 또 역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지내는 제사이다.

이 때에는 집터 가운데에 흙을 적당히 모아놓고 주위에는 왼새끼를 둘러친다. 고사가 끝나면 집터의 네 귀에 술을 조금씩 부어 사방의 신들을 풀어 먹이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실제로 땅을 팔 때에는 주인의 운에 따라서 특정한 방향의 흙을 먼저 다룬다. 그런데 토신제는 묘지를 잡을 때에도 행하였다. 백제의 무녕왕능(武寧王陵)에서는 지신에게 묘지로 쓸 땅을 매입하는 형식을 밟고 그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돌에 새긴 것이 발견되었고 수원 성곽을 쌓을 때에도 팔달산주(八達山主 處士 李 阜)에게 제례를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집터를 양택(陽宅), 무덤을 음택(陰宅)이라하여 한 가지로 생각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개공고사는 일꾼들이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올리는 제사로 텃고사가 지신을 위한 것임에 비해 이 고사는 가신(家神)을 위한 제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텃고사는 사람에 따라 생략하기도 하나 이 고사는 반드시 지낸다. 만약 받아둔 날에 개공고사를 올릴 수 없을 때에는 둥근 나무 두 개의 끝을 묶어 X자 모양이 되도록 벌린 것을

마주 세우고 이 위에 긴 나무를 가로 걸쳐놓는 것으로 고사에 대신한다 또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허공에 대고 “아무곳 아무개가 아무시에 개공을 하였고”하고 세 번 소리치기도 한다.

개공고사에 대해 산림경제^①(山林經濟)에는 “역사를 시작하는 날 제사가 끝나면 주인은 목수들에게 마름질한 들보 아래에(뿌리 부분)톱을 늘어놓게 하고 가신에게 제례를 올린다. 이 뒤에는 붉은 종이에 개공대길(開工大吉)이라고 써서 들보의 머리에 붙이며

따로 황색 종이에 강태공 재차(姜太公在此)라는 글귀를 붉은 글씨로 써서 처음 손질할 나무에 붙여두며 이 부적은 집을 다 지을 때까지 더럽히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다.

① 조선조의 실학자 홍만선(洪萬善 1643-1715)이 지음.

모탕고사는 목수들이 일을 할 때 연장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모탕 주위에 연장과 간략한 제물을 차려놓고 지내는 제사이다.

집을 지을 사람의 운수와 앞으로 그 집을 지켜줄 신령인 성주의 운이 서로 맞는가를 문복장이에게 알아보는 것이 성주운 보기이며 양쪽의 운이 좋을 때, 이를 “성주운이 닿는다”고 한다.

운이 닿지 않을 때에는 그의 아들이나 손자의 운으로 대신하기도 하며 가족 중(남자)에 운이 맞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운을 빌려서 집을 짓는다. 이 때에 집주인은 상량식에도 절을 올리지 않으며 상량문에는 운을 빌린 사람의 이름을 써 놓는다. 집이 완성되면 앞의 사람이 하룻밤을 자고 나서 원주인에게 집을 팔아넘기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량고사는 기둥 위에 보를 얹고 그 위에 마루대를 얹을 때에 올리는 제사로 가장 성대하게 지낸다. 제물은 일정하지 않으나 있는 집에서는 통째로 서너마리에 쌀을 가마니째로 마련하며 돈을 수북하게 쌓아놓기도 한다

목수들은 이러한 제물 외에 주인이나 구경꾼들에게 돈을 받아낼 욕심으로 “그네 태우기”를 하는 일이 있

다. 상량대의 좌우 양끝에 광목을 감아서 1m쯤 공중에 띄우고 주인을 이에 태운 다음, 소리 잘하는 목수가 덕담(德談)을 늘어놓으며, 주인은 이에 보답하는 뜻으로 돈을 내는 것이다.

이 날을 목수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재물이 많이 생기는 때문이며(절상량을 올릴 때에는 신도들이 다투어 돈을 던진다) 노느매기에 있어서는 도편수가 전체의 반을, 그리고 나머지를 목수의 수대로 균등하게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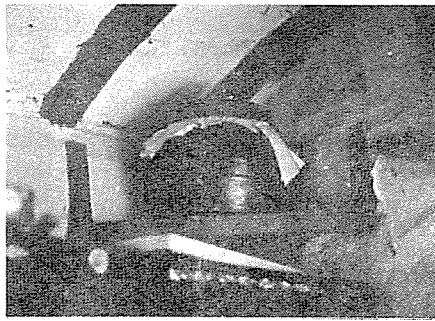
한편 상량목의 머리, 즉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쪽에는 쌀 한줌 가량이 담긴 백지와 북어, 실타래, 돈 등을 무명자투리로 매어두며 이 중의 북어는 뒤에 토역쟁이나 기와쟁이가 술 안주로 삼는다. 일반 가옥의 상량문에는 용(龍)자와 구(龜)자가 마주 대하도록 위 아래에 쓰고 그 가운데에 상량을 한 해, 달, 날, 시 등을 적어두며 어떤 집에서는 개기일과 집의 좌향을 함께 적기도 한다.② 용과 거북이는 수신(水神)이므로 이렇게 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집들이고사는 새로 지은 집으로 처음 들어가거나 이사를 할 때 지내는 제례이다. 이 때에 먼저 집에서 쓰던 화로나 아궁이의 불은 죽이지않고 가져가며 물동이도 물이 담긴 그대로 옮긴다. 요즈음 대도시에서 이사를 할 때에도 연탄불을 꺼뜨리지않고 트럭에 싣고 간다. 이렇게해야 먼저 집에서 누리던 복락을 그대로 간직할수 있다고 믿는 때문이다.

② 보기 : 龜甲寅陰潤五月十九日午 崑 壓 柱 上 樑 龍 (경북 월성군 강동면 양동리 이희태씨집 문간재 상량문)

이사를 한 날 저녁에 집 주인은 마을 사람들과 일가친척을 초청하고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이를 집들이 라고 한다. 남부지방에서는 마을의 농악대가 합세하여 밤늦도록 춤추며 노래를 부른다.

산림경제에는 집들이고사에 대하여 “제물과 정화수를 마련하고 가신이나 조왕신(竈王神)을 위한 제례를 올린 뒤에는 정화수를 버드나무 가지로



① 안방 선반 위에 모신 성주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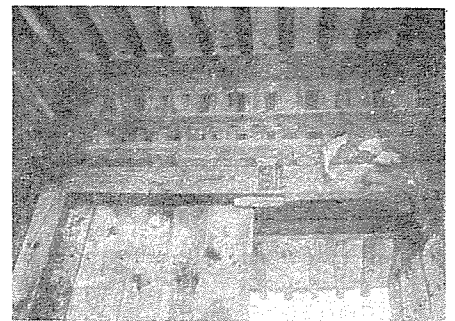
찍어서 문이나 기둥, 방구석, 부엌, 변소 등에 뿌리면서” 천지의 음양이며 일월성광이여 잡귀를 물리치고 곳곳에 좋은 일이 되도록 도와 주시고 우리 태상노군 위하듯이 술술이 풀리지게 하소서(天地陰陽日月星光凡有魔魅俱變吉祥吾奉太上老君急急如律令) 하고 외운다”고 설명되어 있다.

성주는 집을 지켜주는 으뜸가는 신으로 집을 새로 지었거나 이사를 하였을 경우, 주인의 나이가 7의 수가 되는 해(보기 37세, 47세...) 시월 상달에 날을 받아 이 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성주고사 또는 성주굿이라고 한다.

이 고사는 무당이 밤중에 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신을 맞아들여 자리에 모시고 “천석(千石) 만석(萬石) 불려줍소서”하고 축원한다. 이 뒤에 솔씨를 뿌린 것이 재목으로 성장하고 이것으로 집을 지으며 집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또 이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과거에 급제, 부귀영화를 누리다는 내용의 성주풀이를 읊는다.

성주신의 신체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고사 때 걸어두었던 백지에 실과 돌을 둥글게 뭉쳐서 대청의 들보 밑이나 안방 옷목 벽 상부에 붙인 것, 둘째, 앞의 백지를 모지게 여러겹으로 접고 왕돈 한닢을 꿸 다음 안방쪽으로 향한 대들보에 붙이고 쌀을 뿌려 붙게한것. 셋째, 쌀을 넣고 백지로 봉한 향아리(또는 작은 단지)를 대청 뒷벽 아래나 안방의 선반 위에 올려 놓은 것 등이며, 특히 마지막의 향아리에는 매년 햅쌀을 갈아넣는다.

이 성주신에는 집안의 제사 날이나



② 구례 유씨집 대문 위에 달아놓은 말 뼈

명절에 제일 먼저 상을 차리며 가족중에 혼인을 하거나 하는등의 비일상적인 일이 있을 때 먼저 이에 고하여 알리기도 한다.

2. 가신신앙(家神信仰)

우리네의 전통적 가신(家神)에는 앞에서 설명한 성주외에 조왕신과 조상신이 있으며 이외에 업왕이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불의 신(火神)인 조왕은 부엌의 부뚜막 가운데에 모시며신체는 작은 종지에 담긴 깨끗한 물이다. 주부는 새벽마다 샘에 가서 깨끗한 물을 길어다가 새로 부으면서 가족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한다. 불의 신의 신체가 물이 된 것은 불이나 물이 모든 것을 깨끗이 해준다는 관념이 낳은 결과일 것이다. 기독교의 세례, 올림픽의 성화, 굿을 할 때 부정풀이로서 정화수에 재를 넣어 구석 구석에 뿌리는 것도 모두 이와 관련이 깊은 것이다.

조왕신앙은 전국에 퍼져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소멸되었으며 남아 있어도 대부분은 신체를 모시지않은 건궁 조왕이다.

조상신은 세준단지, 제석오가리, 삼신등으로 불리며 안방의 시렁 위에 얹혀진 단지속의 곡식(쌀이나 보리)이 신체이다. 이 단지는 장손집에 모셔지는 것이 보통이며 안의 곡식이 불어 난다든가 빛이 변한다든가에 따라 그해의 농사를 점치기도하며 전북 부안 같은 데에서는 며느리가 어린 아이를 낳을 때 시어머니가 이 단지 앞에 미역과 쌀을 차려놓고 “명도 많고 복도 많고 젖도 많고 순산하게 해 줍소서”하면서 “헛심(힘) 주지말고 된심주어서 헛치마에 외 빠지듯 얼른 낳

도록 도와 좁소서”하고 안산을 기원하는 일이 있다.

업은 집안의 재복을 관장하는 신으로 사람업, 구렁이업, 족제비업 등이 있으나 이 중에 구렁이업이 제일 흔하며 울안의 구렁이가 나가면 가운이 쇠퇴한다고 믿어진다. 경기도나 충청도에서는 작은 단지안에 곡식을 넣고 주저리로 덮은것을 뒷걸의 장독대 위에 놓고 업으로 섬기기도 한다.

전남 영광의 김석주씨 집에서는 곡간의 들보 위에 남자의 옷저고리를 걸쳐놓고 이것을 업으로 생각한다. 명절이나 조상의 기일에는 업에 상을 차려 놓고 재수를 빈다. 업은 사오년마다 한번씩 날을 받아 주부가 새옷을 지어 바꾸어 놓는다.

이 외에 잡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하여 지붕 마루끝에 귀면(鬼面)의 망와를 엮기도하고 때문에 가시나무 가지를 묶어서 매달아 두는 일도 있다.

그런데 전남 구례의 유증교씨집 솟을 대문에는 말머리뼈를 달아놓았다. 주인에 의하면 원래 잡귀의 침입을 막기위해 호랑이 머리뼈를 달아 매었으나 이를 누가 빼어가 버려서 하는 수 없이 말뼈로 대신하였다는 것이다.

말은 원래 북방의 유목민족 사이에는 신앙의 대상이 되어있다. 또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탄생에 말이 큰 역할을 하며 경주의 155호 고분에서 흰 말을 그린 자작나무 널판이 나와서 이를 천마총(天馬塚)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또 여러 곳의 제당에서는 철마(鐵馬)나 목마(木馬)를 모셔놓고 신으로 받들고 있다. 유씨집의 말뼈와 이러한 신앙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3. 풍수설

중국에서 전국시대 말기에 싹트기 시작한 풍수사상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다만 삼국유사에 신라 제 4대 임금이 탈해왕(脫解王?~80)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하는 것으로 미루어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이 사상이 널리 퍼져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탈해가 왕이 되기 전에 토함산에 올라가 내려다 보니 호공(瓠公)의 집터가 삼일월형(三日月形)으로된 길지(吉地)인지라 남몰래 그의 집뜰에 숲을 파묻고 말하기를 “옛날 나의 조상이 이곳에서 대장간을 하며 살았으나 중년에 집을 빼앗겼다”고 거짓 소송하여 그 집터를 빼앗았다는 내용이다. 삼일월은 초승달을 가리키는 것이며 초승달은 날마다 조금씩 커져 가므로 가운의 융성과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다. 결국 탈해가 왕이된 것도 호공의 삼일형 택지를 빼앗은 결과라는 풍수적 설화인 것이다.

이와 같은 풍수사상은 후세에 이르면서 위로는 국가의 정책을 세우는데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이 집터를 잡고 집을 짓는데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깊고도 넓은 영향을 끼쳐왔다. 이 중에 집터에 관계된 풍수설은 동물형, 식물형, 문자형, 물질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물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풍수설은 주로 호남과 영남지방에서 뿌리 깊게 믿어지며 특히 호남지방에서는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신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제가(朴齊家, 1750~?)는 일찌기 “전라도 일대가 우심하게 나쁜 버릇에 물들어서 열 집이면 아홉 사람이 지관 노릇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에 집터를 둘러싼 풍수설의 예를 몇가지 들어 보겠다.

경북 월성군 강동면 양동리의 뒷쪽에는 문장봉(文丈峰, 높이 150여m)이라는 작은 산이 있는데 이에서 흘러내린 산줄기는 물(勿)자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마을의 입향조(入鄕祖)인 손 소(1433~1484)가 집터를 고를 때 풍수는 비옥한 땅에서는 큰 인물이 나지않는다고 하면서 이 산의 중턱을 지정해 주었다.

그는 이 터에 문장봉의 혈맥(血脈)이 뭉쳐서 삼혈식군자지처(三血食君子之處)를 이루었으므로 이 집(현재의 소유자는 손 소의 19대손인 손동만씨이며 이 집은 중요민속자료 23호

로 지정되었다)에서 반드시 위대한 인물 셋이 태어나리라고 예언하였는바, 그 첫째 인물이 손 중돈(孫仲墩)^③ 이요 두번째 인물이 이 언적(李彦迪, 1495~1533)^④이다. 그런데 손 씨 집에서 이 언적이 외손(그는 손 중돈의 누이 동생의 아들이다)으로 태어나 이 씨네 사람이 되었으므로 결국 세 사람 중에 한 인물을 남의 집에 빼앗긴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출가한 딸이 해산을 위해 친가에 와도 해산만은 반드시 마을의 다른 집에서 하도록하는 것을 철저히 지켜오면서 세 번째로 태어날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

③ 그는 도승지를 세 번, 대사간을 네 번 지낸 뒤 우참찬이 되었음.

④ 중종때에 청백리로 뽑혀 경주의 동강서원(東江書院)과 상주의 속수서원(溲水書院)에서 제향을 받들고 있다.

전북 정읍군 산외면 오공리의 김동수 씨 집(중요민속자료 26호)에도 집터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얹혀 있다.

김 씨의 육대조인 김 명관(金命寬, 1755~1822)이 현재의 집터에서 사십여리 떨어진 정읍군 태인면 오봉리 청석골에 좋은 집터가 있다하여 가본즉 마침 그 자리에서 강아지가 똥을 누고 있었으므로 이곳은 강(姜) 씨네 터라고 생각하고 단념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집터(당시는 잡목의 숲)에서 밤이면 북이 세 번씩 울리면서 도깨비가 “한 말... 두 말...”하고 곡식이 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옛부터 북소리가 울리는 데에서는 큰 부자가 난다고 하고, 또 도깨비는 곧 김 씨를 가리키는 것^⑤ 이므로 이 곳에 집을 짓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이다.

⑤ 전북 해안지방의 어민들은 뱃고사를 지낼 때 도깨비를 향해 “물위의 김서방, 물아래 김서방...”하고 축원한다.

그런데 오공리의 주민 들은 산외면 주위의 산봉우리 들이 이른바 평사낙안(平沙落雁)의 형세를 이루고 있어서 이 곳에서 반드시 큰 부자가 나오

리라고 믿고 있다. 이 때문에 근래에 까지 이주해 오는 사람이 많았으며 제 각기 자기가 살고 있는 터에 그 혈(穴)이 뭉쳐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앞의 김 동수씨는 그 혈이 바로 자기 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마을에서 북으로 11km 떨어진 상두산(象頭山 해발 575m)에서 비롯된 혈맥(穴脈)이 물레봉(마을 북으로 7 km 떨어진 곳에 있음. 해발 380m)과 비봉산(飛鳳山, 서북쪽으로 6km 높이 300m)을 거쳐 집 뒤의 지네산으로 해서 자기 집 사당터로 흘러들어 뭉쳐 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이의 증거로 자기 집은 지네산 주둥이에서 100여 m쯤 떨어진 안쪽에 위치하며 이 산에서 흘러 내린 물매가 일단 낮아졌다가 그의 집터에 이르러 다시 솟아서 넓은 평지를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오공리(五公里)는 원래 지네를 가리키는 오공리(蝮公里)로 표기되었고 자연부락명도 공동(蚣洞)이었으나 일정 때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또 김 씨네 뒷산이 지네산이므로 김씨 집 전면 왼편에는 남북(17m)에 비해 동서(32m)가 거의 배나 되는 장방형의 못(깊이 3m)이 있다. 못을 이렇게 기형으로 판 것은 지네가 지렁이를 좋아하므로 일부러 지렁이의 모양을 본떠서 판 때문이다.

앞의 김 명관은 집을 지을 때 대문을 중심으로 왼편으로 40그루, 오른편으로 26그루의 느티나무를 반달형으로 벌려 세웠으며 특히 왼편은 지네산에까지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 나무 들은 현재 40여 그루 밖에는 남아있지않으나 그 무성한 잎으로 장판을 이루며 온 마을은 이 숲속에 파묻히고 만다. 그가 이렇게 온 마을이 숲에 파묻히도록 나무를 많이 심은 까닭은 풍광을 돕기위한 목적보다도, 지네는 습지(濕地)에서 사는 동물 이므로 이를 숲으로 가려 주어야 한다는 풍수사상을 얼마나 깊이 믿고 있었던가는 다음의 이야기가 잘 말해 준다

하였다. 그는 뒤에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심은 나무를 베어내면 지네에게 해롭다고 생각하여 나무를 심은 터까지도 자기 집안의 것으로 하기위한 그루의 터마다 당시 하루 임금의 열 배씩 쳐서 마을 사람들에게 지불하였다는 것이다.

영산 신(辛)씨 들이 모여사는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동(校洞)은 소리개(솔개의 사투리)터라고 전한다. 마을 뒤 영취산(靈鷲山, 해발 681m) 꼭대기의 큰 바위는 솔개의 머리고 양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은 어깨죽지이다. 그리고 신씨네의 종가인 신 용문씨 집터는 바로 솔개의 똥구멍에 해당한다.

이 마을에서는 20여 년전까지 우물을 파지 못하고 산에서 흐르는 개울물을 길어다 먹었다. 땅을 파면 솔개의 몸에 구멍을 뚫는 것이 된다고하여 신씨네에서 이를 금해왔던 때문이다. 또 신 씨네 집에서 마을양쪽 능선에 부지런히 나무를 심었으며 아무도 이를 베지못하도록 엄중한 감시를 해왔다. 이 능선의 나무가 솔개의 날개갯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이를 보호하지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집터에 동물이 관계를 맺고 있는 예는 이 외에도 남원 김씨^⑥ 집과 의성 단촌의 김동주씨 집의 호랑이 그리고 나주 홍씨^⑦ 집을 들수 있으며 이중 김동주 씨 집터에 관한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김 씨 집 뒤에 있는 무덤재(해발 200여m)는 호랑이가 누워있는 형상을 이루고 있어서 이를 호랑이 산이라고도 부르며 김씨 집터는 호랑이의 앞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⑥ 내굴, 전북지방의 가옥.

⑦ 내굴, 전남지방의 가옥. ⑧ 남원지역, 한국문화 인류학 11집, 1979 ② 나주, 영암지역, 마한 백제문화

또 어떤 이는 호랑이가 이 집에 발을 딛고 건너산으로 뛰어가는 형국이어서 호혈(虎穴)터라고도 하며 집터가 이처럼 호랑이와 관련이 깊어서 집에서 개를 기르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북 경산군 용성면에 있는 최해근씨 집은 매(鷹), 용, 그리고 쌀을 이는 조리와 연관되어 있다. 최 씨 집 앞의 용산(龍山, 해발 435m)은 원래 모양이 매와 비슷해서 매봉으로 불려왔으나 이 산에 살던 구렁이가 승천한 뒤로는 용산으로 바뀌었다. 이산이 이 곳에 있게된 것은 조선조 때 어떤 이가 꼬챙이 끝에 산을 꿰어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이 산이 걸어간다고 소리치자 놀라서 떨어뜨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산의 줄기가 최 씨 집터를 향해 뻗어 내려왔는바 이 능선이 조리의 자루이고 집터는 조리의 바닥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조리는 어떤 물질을 전질 때에는 한 번에 모두 건지나 얹어 놓으면 다 쏟아지게 되므로 최 씨 집에서 한 대에서는 재산을 모으고 다음 대에서는 그 재산을 한꺼번에 써버리는 과정을 되풀이해 왔다고 한다.

그리고 집터에 식물형 풍수설이 연관되어 있는 예는 경북 영천군 임고면 삼대동의 정 재영 씨 집(중요 민속자료 24호)으로 이 집의 뒷산이 매화낙지(梅花落地)의 형국을 이루고 있으며 앞 산은 이 매화를 찾아드는 나비의 모습이고 집터는 매화의 꽃술에 해당된다고 한다. 물질형 풍수 설은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의 유증교씨 집과 전남 영안군 군서면 도갑리의 최 일석 씨 집을 들수 있다. 앞의 집은 금반지가 떨어진 땅(金環落地)이라 하고 뒤의 집은 터가 달 모양을 이루었다고도 하고 터가 반반하다하여 옛부터 금반지처(金盤之處)로 불려왔다고 한다.

4. 지붕

우리나라의 집의 지붕을 덮는 재료에는 새, 굴피, 너와, 돌기와, 짚, 기와 등이 있으며 이를 따라 셋집, 굴피집, 너와집, 초가집, 기와집으로 부르기도 한다.

새는 들이나 산에서 자라는 야생의 풀로써 집마다 제각기 베어서 지붕을 덮기도 하나 이것이 많지않은 데에서는 일정한 지역에 이것을 가꾸어 보

존해 가면서 일 년에 한 두 번만 날을 정하여 베어낸다. 제주도에서는 망이 메달라져서 농사를 이 삼년 쉬게 될 때 그 곳에 새왓”(새밭)을 가꾸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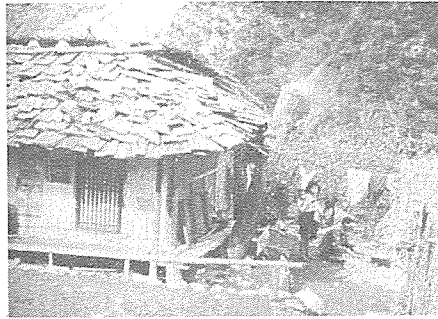
새로 지붕을 덮을 때에는 밀둥이 왼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삼층을 이루도록 덮어 나가며 제주도와 같이 바람이 센 곳에서는 새끼줄을 그물처럼 엮어 덮어서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는다. 새는 짙고 달라서 틈이 많이 벌어지므로 매우 두껍게 덮어야 하며 빗물이 빨리 흘러내리도록 하기 위해 지붕의 물매를 되게 잡는다. 강우량이 많은 일본의 셋지붕은 보통 3m 가량된다.

굴피는 상수리 나무의 껍질로, 산간지대에서는 이것을 벗겨서 지붕을 덮기도 한다. 이 십여년 이상 자란 나무의 껍질이지만 크기를 일정하게 벗겨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덮은 지붕을 보면 마치 누더기를 걸친 것처럼 심한 불균형을 이룬다.

굴피는 매기가 건조해지면 바짝 오무라 들어서 군데 군데 하늘이 보일 정도가 되지만 비가 내리든지하여 습도가 높아지면 이내 늘어나서 틈을 매우며 이음새에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돌로 지질러 둔다. 굴피지붕의 수명은 매우 긴편(약 5년)이어서 “기와 만년에 굴피 천년”이라는 말이 전한다.

너와를 강원도에서는 느에, 또는 능애라고도 하는데, 200년 이상 자란 소나무(赤松)토막을 길이로 세워놓고 두꺼로 쪼개 작은 널판이다.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보통 가로 20~30cm, 세로 40~60cm이며 두께는 5cm 내외이다. 지붕의 용마루쪽에서부터 끝을 조금씩 물러나가면서 덮어나가며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군데군데에 돌을 엮어둔다.

너와는 70 장을 한 동이라고 하며 한 간 넓이의 지붕에는 보통 한 동반에서 두 동 가량이 소요된다. 너와 한 장의 수명은 5년 가량이며 기와 지붕을 수리할 때처럼 그때 그때 필요에



③ 너와 지붕

따라 썩은 것을 갈아내고 새것으로 바꾸어 끼운다. 이것으로 지붕을 덮을 때 방천정에는 판판한 나무를 30cm쯤의 너비로 가로 놓고 이를 의지해서 잔나무를 촘촘하게 붙여 천정으로 삼으나 정지나 마구 등에는 천정 시설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에는 굴뚝으로 빠지지 못한 연기가 너와 사이로 뿜어져 나오므로 지붕이 불에 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그리고 산간지대에서는 오지굴뚝 대신 반으로 쪼개 얇은 참나무의 속을 길이로 파낸뒤에 다시 마주 붙여서 굴뚝으로 쓰는 일이 많다.

돌기와는 얇은 판석(板石) 조각을 이르는 말이며 이것이 생산되는 충청도의 보은 근처에서 돌기와집을 더러 볼 수 있다. 보통은 돌조각의 생김대로 이어 덮으나 어떤 데에서는 마치 수공지를 가위로 오려내듯이 크기와 모양을 일정하게 하여 덮기도 한다.

벗짚을 언제부터 지붕에 덮기 시작하였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벼농사가 시작된 삼국시대에 이미 이것을 사용했으리라고 추측된다. 벗짚은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 안의 공기가 여름철에는 내려죄는 햇볕을 감소시키고 겨울에는 집안의 온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구실을 한다. 그리고 걸이 비교적 매끄러워서 빗물이 잘 흘러 내리므로 두껍게 덮지 않아도(보통 30cm내외이나 이보다 얇아도 지장이 없다) 비가 새지 않으며 누구든지 이를 쉽게 덮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초가지붕은 짚 자체가 지닌 성질 때문에 따스하고 부드럽고 푸근한 느낌을 주며 한 해에 한 번씩 덧덮어



④강원도 평창군의 까치구멍집

주므로 집에 특별한 치장을 하지 않아도 거의 언제나 밝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지붕의 물매는 매우 완만하기 때문에 농가의 마당이 좁을 때에는 고추 등속의 농작물을 널어말리며 천둥호박이나 바가지의 넝쿨을 올려서 지붕을 밭의 일부로 사용하기도 한다.

짚으로 지붕을 잇는 방법에는 비늘이영법과 사슬이영법의 두 가지가 있다. 앞의 이름은 그 모양이 물고기의 비늘을 닮은 테에서 온 것으로 짚의 수냉이(뿌리)를 한뼘 정도 밖으로 내어서 엮는 방법이다. 길게 엮은 날개 두 장을이영꼬챙이로 꿰어 올린 다음 지붕의 앞뒤를 덮고 남은 부분으로 좌우 양측을 가려주며, 두 장이 마주치는 등마루에는 곱새를 덮는다. 사슬이영보다 오래가며 벽도 가릴 수 있다.

사슬이영은 수냉이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일정한 크기로 엮은 날개 수십 장을 둥글게 말아서 지붕 위로 올린 뒤에 멩석을 퍼듯이 퍼나가면서 지붕을 덮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수냉이가 처마밑으로 오도록 깔고 다음에는 이와 반대로하여 덮어 나간다. 사슬이영으로 이으면 지붕의 표면이 매끈하며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고 새끼를 늘이어 서까래 끝에 잡아맨다. 우리나라의 서북지방에서는 주로 비늘이영을,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슬이영으로 덮는다.

초가지붕은 대체로 모임지붕의 형태를 이루나 겹집인 경우 이른바 까치구멍이라고 하여 용마루를 짧게하고 좌우 양끝의 짚을 안으로 옥여 넣

어서 까치가 드나들만한 구멍을 내어 두는 일이 있다. 이 구멍으로 집안에 햇볕이 들어오고 연기가 빠져나가기 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멍은 초가 집 뿐만 아니라 너와집이나 굴피집에 서도 볼수 있다. 또 기와집에는 양 합각에 창을 달거나 구멍에 덮개를 장치하고 집안에서 여닫는다.

그런데 어떤 기와집에서는 복문(福門)이라고 하여 적새 위에 솟기와를 엮을 때 한 가운데의 두 장을 서로 어 스러지게 팔자(八字) 모양으로 마주 세워두는 일이 있다. 이를 세울 때 주인은 기와장이에게 술과 음식을 내 접하므로 상량을 올리는 날이 목수의 생일이라고 하듯이 이 날을 기와쟁이의 생일이라고 한다. 민간에서는 이 문으로 복이 들어온다고 하나 내 생 각에는 까치구멍처럼 원래는 채광이나 배연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전남의 장흥, 강진, 보성 등지의 초가지붕 위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유지기라는 것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초가지붕의 용마루에 굵은 통대나무나 통나무를 가로 지르고 이 위에 곱새를 덮는데, 나무와 나무의 이음새나 좌우 양측에 벗질 한 단 가 량을 단단히 묶어매고 수뎡이쪽을 낮 으로 잘라서 가느런히한 다음 이것을 거꾸로 용마루에 잡아매어서 마치 상 투를 틀어올린 모양을 이룬다. 유지 기는 한 지붕에 하나만 세우기도 하나 두 세개를 세운 집도 있다.

⑧ 그런데 제주읍 지에 인용된 風土錄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는 “새를 엮지않고 지 붕 위에 고루 퍼서 덮은 다음 긴 나무 를 가로대고 묶어서 눌러둔다(人居階 茅茨不編鋪積屋上以長木橫結庄之瓦屋 絕少)”고 하였는 바, 앞의 지역에서 용마루에 엮는 장대나 나무도 이와 유 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⑧ 風土錄은 조선조 중종때 대사헌과 형조 판서를 지내고 조광조 등과 함께 기묘사 화때 화를 입어 제주도에 정배, 그곳에서 죽은 金淨(1486-1521)의 저작이다.

물론 제주도는 바람이 센 곳이므 로 나무를 사다리 모양으로 서너 개 나란히 늘어놓았을 터이지만, 전 남 해안과 제주도는 거리상으로도 최 단거리이고, 용마루 위에 긴 나무를 걸쳐놓는 원래의 목적도 바람에 날리 는 짚을 눌러주기위한 데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는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기와를 춘추 전국시대 (기원전 8세기~3세기)에 사용하였다 고하나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쓰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분명 히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마니사금(祇麻尼師今) 11 년(기원후 122년)조에 “큰 바람이 불 어서 나무가 꺾이고 기와장이 날렸다” 고 적혀있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나라 에서는 기원 전후한 시기에 궁궐이나 큰 건물에 기와를 덮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서기에 의하면 세계 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라고 하 는 법륭사(法隆寺)를 지을 때 (607년) 백제에서 기와박사 네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기와를 구어주었다고 하므 로 7세기 경에는 기와를 굽는 기술 이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질 정도의 수준에 올라 있었던 듯 하다.

5 온돌, 마루, 봉덕화투, 고콜

우리나라의 가옥에 유입된 외래의 문화요소 중에 가장 대조를 이루는 것 이 온돌과 마루의 시설이다. 다 아는 것과 같이 온돌은 매우 추운 곳에서 생활하기에 편리한 난방 시설이고 마 루는 덥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지내 기에 적합한 공간이다. 이러한 문화 요소 들은 우리나라의 기후가 여름에 는 무덥고 겨울에는 매우 추운 대륙 성 기후를 띄고 있기 때문에 수용, 발전되어온 것이다.

구체적인 지명을 대기는 어려우나 온돌은 만주나 시베리아에서 그리고 마루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원하 여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우리 문화 의 근원을 따질 때 앞의 것을 북방적 인 요소의 하나로, 뒤의 것을 남방적 인 요소로 손꼽는다. 이러한 사실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추위가 심한 함



⑤ 전남 장흥지방의 유지기

경도 지방의 가옥에는 마루가 없으며 제주도의 집에는 근래에까지 온돌이 시설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의 가옥에는 온돌방과 마루 가 균형있게 배치되어서 여름에는 주 로 마루에서 그리고 겨울에는 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보편적인 주거 양식으 로 되어있다.

한편 함경도 지방의 가옥에 마루가 없는 대신 이와 비슷한 종합적인 기 능을 하는 온돌구조의 정주간이 있으 며 제주도의 마루 한 가운데에는 불 을 피우는 봉덕(이를 부섭이라고도한 다)이 있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조 금 더 늘어 놓기로 하자.

온돌은 두만강 유역의 신석기시대 움집 자리에서 그 원형이라고 생각되 는 것이 발견 되었으며 그의 관한 기 록으로는 구당서(旧唐書) 동이전(東 夷伝) 고려조(고구려를 말함)에 “장 갱(長坑)을 만들고 그 밑에 불을 때 서 방을 따뜻하게 한다. (冬月階作長 坑坑下燃燼火以取煖)”고 한 것이 가 장 오랜 것이다. 이 글의 장갱은 곧 온돌을 이르는 것이며 이로써 늦어도 7세기 경에는 우리나라 북부에 온돌 이 널리 보급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물론 이 장갱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이 방 전체에 시설된 것이 아니고 최초에는 만주 지역의 갱처럼방의 한 쪽에만 시설되었다가 점차 오늘의 온 돌로 발전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온돌은 매우 완 만한 속도로 남쪽으로 전파되었다. 12세기 초에 이 규보(李侏報, 1168~ 1241)가 쓴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 集) 제5권에 “이 학사가 새로운 온돌 방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실려있는 것

을 보면 이 때에도 온돌은 매우 드문 시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익(李翼, 1579~1624)이 성호새설 유찬에서 “일찌기 늙은 이들에게서 들으니 백여 년 전까지만하여도 재상 귀족 들의 넓은 집도 온돌은 한 두칸에 불과 하였으며 늙고 병든 사람이나 기거하는 방으로 되었다 그 외는 다 판자를 깔고 마루방에서 머물렀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17 세기에 이르러도 온돌이 일반 민가에 널리 시설되어 있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제주도에 온돌이 보급된 것은 극히 최초의 일이라 하겠다. 앞의 이 익도 같은 책에서 “제주의 풍습이 ... 판자를 깔아 마루방으로 하고 온돌이 없으며 다만 초석을 깔고 온기를 취한다”하였지만 16 세기에 쓰여진 동국여지승람이나 17 세기의 탐라지도 이곳에 온돌이 없음을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에 이처럼 온돌이 더디게 이용된 것은 그 원인이 온돌 시설의 전파 속도가 느린 때문이라고하기 보다는 이 곳의 자연환경이 온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를 느끼지 않을만큼 따뜻한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제주에서는 근래에까지 여름철에 음식을 만들 때 생기는 열기가 방안에 흘러드는 것을 막기위해 부엌을 별체에 따로 마련하였으며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구들과는 반대쪽에 한테부엌을 걸어서 불을 때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봉덕은 주로 겨울철에 이용하는 난방구였다. 이곳에 불을 피우고 천정에서 늘어진 줄에 솔이나 냄비를 걸어 음식을 조리하고 이에 젖은 옷을 말리기도 하였다. 또 봉덕불은 조명구의 구실도 겸하였고 겨울철에는 남자들이 어린이와 더불어 이 주위에서 잠을 자는 일도 있었다. 발화구가 불완전했던 당시에는 봉덕이 불씨를 갈무리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따라서 제주의 봉덕은 일본가옥의 이토리(囲炉裏)와 그

기능이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북쪽의 전자형(田字型) 가옥에서는 마루의 기능을 정주간이라는 공간이 전담하고 있다. 정주간과 부엌과의 사이에는 벽이 없이 터졌고 정주간의 바닥은 지면에서 1m가량 높아져 있으며 그 아래에 구들이 시설되어 부엌쪽의 아궁이로 불을 댈다. 가족들은 이곳에 모여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며 손님을 접대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주간에서 부엌으로 내려가는 한쪽 끝에는 등퇴가 시설되었으며 이를 등퇴간이라고 하였다. 등퇴에는 아궁이의 불을 떠서 옮겨놓고 음식을 끓였으며 이곳의 온기로 집안이 더워지기도 하고 또 관솔불을 밝혀서 조명을 삼기도 하였다. 등퇴에는 잔나무가지로 우산처럼 엮은 것을 덮고(이를 표준말로는 어리라고하나 개성에서는 기태, 함경도에서는 어롱



⑥ 부뚜막 옆에 만든 화투

태라고 한다)

이 위에 불을 피울 관솔이나 젖은 옷가지등을 말린다. 등퇴의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화로불에 어리를 씌우고 이와같이 한다. ⑨

강원도의 화투는 등퇴의 한 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지역의 화투는 부뚜막 귀퉁이에, 진흙을 이겨서 화로 모양으로 쌓은 것으로(높이 70~80cm) 상부는 작은 솔을 걸수 있도록 우묵하게 뚫으나 이와는 별도로 아래쪽에 한 변이 20cm쯤되는 사각형의 구멍을 내었다. 상하부는 차단되어 있으며 윗 구멍에는 불을 피워서 조명에 대신하거나 음식을 끓이는 데에 쓰나 아래 구멍은 단지 불씨를 묻어두기 위한 것이다. 원시적인 발화기구 밖에 없었던 예전에는 이에 고장이 생기면 낭

패를 볼 수 밖에 없었으므로 불씨를 간수하는 일이 무엇보다 긴급 하였으며 이것은 주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였다. 젊은 주부가 불씨를 꺼뜨린 죄로 시집에서 쫓겨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불씨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가 전한다. 어느 날 새벽,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던 시아버지의 눈에, 불씨를 얻어가지고 들어오는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시아버지가 매우 꾸짖고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르자 그 며느리는 “이 불씨는 어제 이웃집에 빌려주었다가 오늘 찾아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여 위기를 넘겼다라는 내용이다.

⑨ 내글 “강원도 산간가옥 배동”문화인류학 5집, 1972.

이러저러한 이유가 겹쳐져서 불씨를 죽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신까지 생겨나고 이러한 관념은 요즈음에도 뿌리 깊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앞에서 이러한 것처럼 대도시에서 이사를 할 때 연탄불을 꺼뜨리지않고 이사짐과 함께 옮겨가는 것이 그것이다.

역시 강원도 산간가옥에서 볼 수 있는 고쿨(이를 코쿨, 코쿠리라고도 한다)도 등퇴와 관련이 깊은 것이다. 이것은 방의 벽과벽이 마주치는 귀퉁이에 진흙을원추형으로 쌓아올리고 하부에 사각형의 아가리(한 변의 길이20cm)를 붙였으며(방바닥에서 아가리까지의 높이는 40~50cm) 꼭대기에서는벽에 구멍을 뚫어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저녁에 이곳에 관솔불을 피워서 방을 밝히며 추운 때에는 난 방에도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아이들은 긴긴 겨울밤에 이 불에 감자를 구어먹기도 한다. (*)